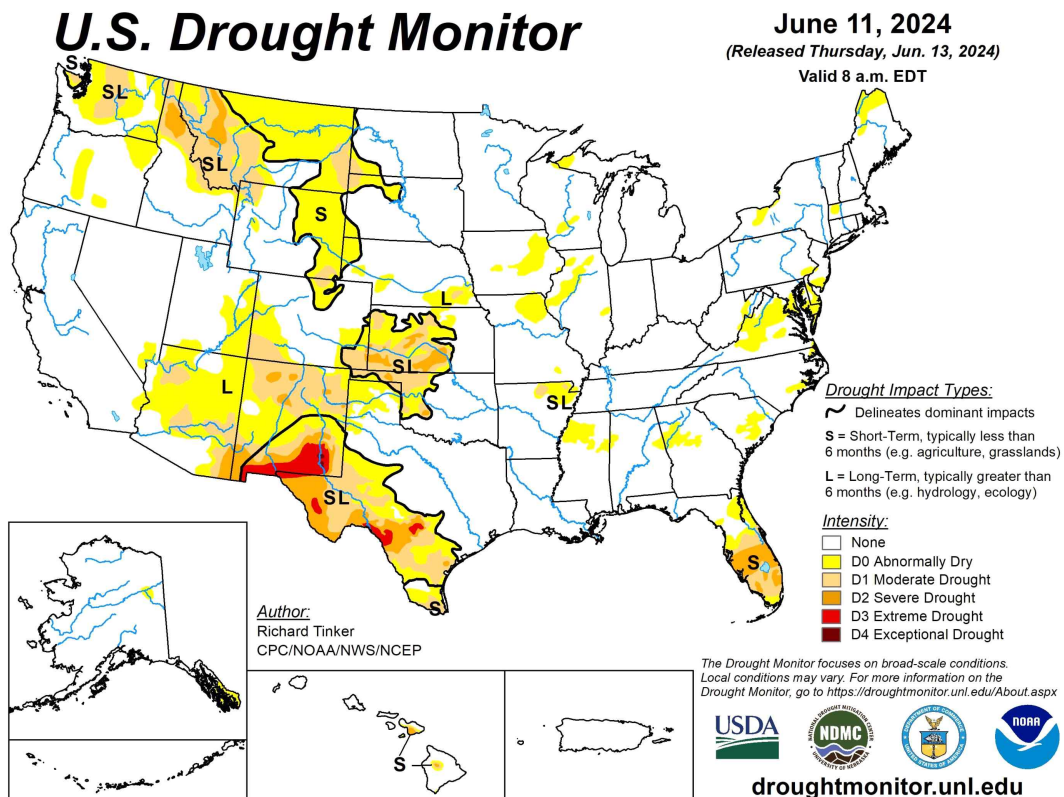


6월 18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11, No. 25)

□ 미국 기후 현황(6/9-6/15)

플로리다 남부 전역에서 갑작스럽게 내린 폭우로 가뭄이 사라졌지만 돌발 홍수가 발생했다. 6월 7-15일에 총강우량이 1 피트를 넘어가는 일은 흔하여 포트마이어스(12.88 인치), 마이애미(14.19 인치), 포트로더데일(15.01 인치) 같은 곳들에 영향을 주었고 가장 큰 비는 일반적으로 6월 11일, 12일 또는 13일에 내렸다. 그러나 남부, 동부, 중서부 하부의 나머지 지역 대부분에는 비가 거의 또는 전혀 내리지 않아서 겨울 밀 수확 등 야외 작업을 하기에 좋았으나 여름작물들을 위한 표토 수분을 감소시켰다. 한편, 미국 중부 지방에 다양한 수준으로 내린 강우로 인해 북부 및 중앙 평원과 중서부 상부 전역에 천등번개가 광범위하게 발생했다. 텍사스와 주변에서도 드문드문 폭풍이 발생했다. 그밖에 로키산맥의 서쪽에는 강수가 거의 없었는데 이는 고기압 능선이 소나기 활동을 억제하여 기온을 올리는데 기여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몬태나 남부, 콜로라도 북동부 및 사우스다코타와 네브래스카의 서쪽 구역을 포함하여 먼 동쪽에 있는 고원의 기온은 대체로 평년보다 최소 5-10° F 높았다. 반대로 평년에 가깝거나 평년보다 낮은 기온이 미국 동쪽 절반 대부분을 덮었으며 오하이오 계곡과 오대호 주들에서는 평균값이 평년보다 5° F 낮았다.



### □ 농업 현황 요약(6/10-6/16)

6월 16일에 끝나는 주간에 국내 대부분이 평년보다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는 동안 플로리다 남부 대부분에서는 평년 대비 최소 두 배의 강수량이 기록되었다. 플로리다 남부 일부에서는 비가 내리는 며칠 동안 최소 1피트의 비를 쏟아 부었다. 태평양 북서부 일부를 제외하면 국내 서부 대부분은 6월 16일에 끝나는 주간 평년보다 따뜻했다. 네바다, 유타 그리고 와이오밍의 일부는 평년보다 10° F 이상 높은 기온을 기록했다. 남동부를 제외하고 국내 동부 대부분은 평년보다 선선했다. 오대호 일부, 북동부 그리고 오키오 계곡은 평년보다 4° F 이상 낮은 기온을 기록했다.

### □ 세계 기후 현황(6/9-6/15)

#### ■ 유럽:

서유럽 대부분에 다시 비가 내렸고 대륙의 중앙 및 동쪽 일부에서는 계속 비가 내렸다. 지난주 영국, 프랑스 및 독일이, 절실히 필요했던 대로, 과도한 습기에서 벗어났던 일이 있는 후에, 비록 변동 폭이 컸지만, 광범위한 소나기와 천둥번개(5-60 mm)가 다시 야외 작업을 지연시켰고 익어하고 있는 겨울작물들에 대한 품질 문제가 다시 발생했다. 그러나 프랑스 중북부에서부터 독일 중부와 동부까지 건조한 날씨 때 (국지적으로 5 mm 미만)를 형성하고 있었다. 한편 유럽 동쪽 3분의 1 지역에서는 보통 수준 내지 강한 수준의 소나기와 뇌우(10-80 mm)가 영양기 여름작물들을 위한 토양 수분을 증가시켰으나 겨울작물의 건조와 이른 수확을 지연시켰다. 그러나 그 비는 발칸반도에서 계절 초의 더위 (33-37° C)의 영향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그리스에서는 건조하고 더운 날씨 (38-42° C)가, 특히 마케도니아에서, 발달하고 있는 가뭄에 대한 우려를 높였다. 더 서쪽에 있는 이베리아 반도에는 소나기가 대체로 오락가락 약하게 내렸는데 단기 토양 수분 결핍을 완화하는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 대조적으로 이탈리아 북부에는 다시 한 차례 보통 내지 강한 수준의 비(30-75 mm)가 내려서 다시 홍수가 일어났다. 전반적으로 유럽의 겨울 작물은 성숙기에 가까워지고 있거나 성숙기에 들어섰으나 옥수수, 해바라기 그리고 대두는 여전히 영양기에 머물러 있었다.

#### ■ 구소련(서부):

북부 및 서부 재배 지역에서 습한 날씨가 지속되었고 한편 러시아 남서부와 우크라이나 남동부에서는 절실했던 강우가 가뭄을 완화해주었다. 몰도바, 우크라이나 서부와 북부 그리고 러시아 중서부 전역에서는 보통 내지 강한 비 (10-90 mm)가 계속되어서 종실비대 및 성숙 중인 겨울곡물들과 유지작물들과 아울러 영양기 여름작물들을 위해서 풍부한 토양 수분 공급을 유지해주었다. 남쪽과 동쪽으로 더 가면, 우크라이나 동부 (6-33 mm)와 러시아의 남부 (5-110 mm)와 북코카서스 (10-60 mm) 지방에서는 매우 가변적인 소나기와 뇌우가 발달했는데 비가 전혀 내리지 않았다는 보고도 몇 차례 있었다. 그래도 그 비는 이 지역에서 생식기 내지 종실비대 중인 겨울 밀과 영양기 여름작물들을 괴롭혀 온 극심한 가뭄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심각한 장기적인 수분 부족이 계속되고 있어서 그 가뭄이 끝나려면 아직도 멀었다. 모니터링 기간 동안 우크라이나 동부에서부터 러시아 서부까지의 기온은 평년보다 평균 3-6° C 높았고 러시아 남부 지방의 낮 최고 기온은 35° C에 달하거나 이 수준을 넘어갔다. 그 더위는 겨울 밀의 성숙을 재촉했고 여름작물의 발달을 가속화하여 영양기를 빠르게 지나가게 하였다.



#### ■ 동아시아:

이 기간 동안 몬순 습기가 남중국을 관통하면서 꾸준히 유입되면서 때때로 폭우나 호우를 만들어내었다. 폭이 넓은 때 모양의 한 지역에 50 mm가 넘는 비가 내렸고 남동부의 한 곳에는 500 mm가 넘는 비가 내렸다는 보고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그 풍부한 수분은, 국지적으로 범람이 일어났고 그때에 (봄에 파종했던) 조생벼가 익어가고 있었지만, 여름 벼에게는 반가웠다. 한편 화북평원에서부터 남쪽으로 양쯔 강까지는 더위와 건조함이 만연했다. 그런 조건이 밀의 수확을 진전시키는 데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42° C를 넘는 온도는 거의 15년 만에 가장 높았던 온도이며 이로 인해 여름작물들을 위한 토양 수분이 상당히 소실되었다. 그밖에 북동쪽에서는 강우 (대부분의 지역에서 25-75 mm)가 계속되어, 내몽골에서는 약간의 약한 건조가 발생하고 있었지만, 옥수수과 대두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서쪽 (신장)은 재배 조건이 스트레스성 더위가 없이 충분히 따뜻하여 면화에게 거의 이상적인 상태를 유지했다.

#### ■ 호주:

더 건조한 날씨 (5 mm 미만)를 보였던 한 고립 지대를 제외하면 반가운 비 (5-25 mm, 국지적으로 더 많았음)가 서호주 밀 지대 대부분에 걸쳐서 계속 확산되면서 계절 초기 겨울작물의 전망을 더욱 향상시켰다. 마찬가지로 남호주와 빅토리아 서부에서는 강우 띠 (5-25 mm, 고립된 곳에 더 많은 양이 내림)가 받아 또는 출현 중인 밀, 보리, 캐놀라를 위해 절실했던 표토 수분을 올려주었다. 동쪽으로 더 멀리 빅토리아 동부와 뉴사우스웨일즈의 중부와 남부에 산발적인 소나기들 (3-20 mm)이 내려서 겨울곡물과 유지작물의 발달에 도움을 주었고 뉴사우스웨일즈 북부와 퀸즐랜드 남부에서는 맑은 하늘과 거의 정상에 가까운 토양 수분이 조합되면서 밀과 기타 겨울작물들을 위해 양호한 상태를 유지했다. 평균 기온은 퀸즐랜드 남부와 뉴사우스웨일즈 북부에서는 평년보다 2-3° C 낮았고, 뉴사우스웨일즈 남부와 빅토리아에서는 거의 평년에 가까웠으며, 남호주와 서호주에서는 평년보다 1-3° C 높았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최고 기온은 섭씨 10도 중반에서 20도 초반 사이의 범위를 보였다.

#### ■ 아르헨티나:

남부 생산 지역들에서는 가벼운 소나기가 출현 중인 겨울곡물들에게 도움이 되었다. 총 5-20 mm의 비가 라팜파, 부에노스아이레스 남부 그리고 엔트레리오스에 내렸고 더 먼 북쪽과 서쪽에 있는 농업 지역들은 날씨가 대체로 건조했다. 계절에 맞지 않는 따뜻함이 밀과 보리의 빠른 발아를 촉진했고 또 성숙한 여름작물을 건조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다. 주간 평균 기온은 라팜파에서는 평년보다 4° C 높았던 데에서부터 파라과이와 브라질 국경 근처에서는 평년보다 9° C 높은 정도까지의 범위를 보였다. 더 따뜻한 북부 지역들에서는 낮 최고 기온이 섭씨 30도 초반에 이르렀고 한편 더 습한 남부 농업 지역들은 보다 다소 온화한 날씨 (최고 기온이 20도 대에 달함)를 기록했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6월 13일 현재 옥수수와 면화는 각각 52 및 50 퍼센트 수확되었고 한편 대두의 수확은 거의 완료되었다(98 퍼센트); 밀과 보리는 각각 39 및 29 퍼센트 파종되었다.

## ■ 브라질:

따뜻하고 화창한 날씨가 성숙하고 있는 옥수수과 면화의 빠를 발달을 촉진했다. 북동 해안을 따라 내리는 계절 강우 (10-50 mm)를 제외하면 연중 이맘때면 어느 정도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남쪽에 있는 지역들을 포함해서 이 나라의 주요 농업 지역들에는 비가 거의 또는 전혀 내리지 않았다. 남쪽에서는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에 건조함이 동반되었고 히우그란지두술에서부터 파라나 서부까지 주간 기온은 평년보다 평균 7-9° C 높았다 (낮 최고 기온이 섭씨 20도 후반과 30도 초반에 달함). 히우그란지두술 정부에 따르면 6월 13일 현재 대두와 옥수수는 각각 98 및 95 퍼센트 수확되었다. 파라나에서는 2기작 옥수수가 6월 10일 현재 13 퍼센트 수확되었고 남아 있는 작물의 66 퍼센트가 성숙 중이었다; 한편 밀은 82 퍼센트 파종되어 계절적으로 더 습한 날씨로 돌아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더 북쪽으로 가면 기온이 평균적으로 평년에 더 가까워졌고 마투그로수와 북동부 내륙에서 전통적으로 더 따뜻한 곳들에서는 낮 최고 기온이 30도 중반에 이르렀다. 마투그로수 정부에 따르면 6월 14일 현재 옥수수는 22 퍼센트 파종되었는데 이는 5년 평균 속도보다 6 포인트 앞선 것이다.